

[사회]

무등산 약수 '음용불가' 표시 있어도 시민 62% "그냥 마신다"

광주시, 살균 소독기 설치 등 정비키로

무등산을 찾는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약수를 마시지 않는데 반대로 '음용불가' 표시가 되어도 그냥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광주시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무등산 등반객 등 시민 304명을 대상으로 '무등산 약수터 이용 시 '음용불가' 표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37.8%가 "상쾌하게 마시지만 평소와 같이 마신다", 24.3%는 "수질결과에 상관없이 마신다"고 응답하는 등 62.1%가 같은지 아니면 무조건 약수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시지 않는 경우는 37.8%였다.

또 무등산 등반시에 생수를 지참하지 않고 약수터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34.9%였다. 생수를 가지고 오면서 약수터도 이용하는 경우가 33.6%, 생수만 지참은 31.5%였다.

시민들은 '분기 1회, 하절기에는 월 1회'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 52.6%가 "더 자주 검사하라"고 답했고, 47.4%는 "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음용 부적합 시설(1년 이상)에 대한 폐쇄 여부에 대해 "폐쇄하지 말고 소독·살균 등의 방법을 적용해 이용해 해달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우선 6천300만 원을 들여 너덜경·평두메 등 표층수인 약수터 9곳의 저류조 플라스틱 통을 교체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민들이 음용 적합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수질 성적표 안내간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산장광장·청품원터·총장사·늑재 등 약수터 4곳은 자외선이나 오존을 이용한 살균소독기를 설치한다.

무등산 약수터는 13곳 모두 지난해 7월, 9월 수질검사서에서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무등산 약수는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김정기자 jnews@kwangju.co.kr

■약수터 음용불가 표시가 있을 때 어떻게?



■부적합 약수터 관리방안



'3불정책' 엇갈린 입장

교총 "재검토 불가피"...전교조 등 "폐지 반대"

최근 교육계 이슈가 되고 있는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교육단체가 27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 회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총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3불 정책은 이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그러나 3불 정책의 재검토는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면적으로 해제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불 정책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려 한꺼번에 '폐지' 혹은 '유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로 당사 가능한 것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 개 단체는 이날 서울 정동 배재대학출신 원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불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기회 보장의 최후 보루"라며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3불 정책이 대학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막가파식 주장"이라며 "대학들은 통합 논술로 이미 본고사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고 있고 3불 정책을 폐지하면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학생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교등급제는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이 선배들의 대입 성적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신흥연좌제로 작용할 것이고 기여입학제는 계층 위화감을 조장하며 본고사를 폐지하면 사교육이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환뉴스

이슬비 내리는 오후

차차 흐려져 오후 한 때 비가 오겠다.

3월 28일 (음 2월 10일) <날씨> <전국날씨>

광주	오후 한 때 비	5~17℃
목포	오후 한 때 비	7~16℃
여수	오후 한 때 비	8~16℃
순천	차차 흐려짐	6~17℃
담양	오후 한 때 비	2~19℃
영광	차차 흐려짐	4~18℃
영암	차차 흐려짐	4~18℃
강진	오후 한 때 비	5~17℃
고흥	오후 한 때 비	2~18℃
보성	오후 한 때 비	6~17℃
곡성	차차 흐려짐	4~17℃
구례	오후 한 때 비	5~17℃
완주	오후 한 때 비	3~18℃
진안	오후 한 때 비	5~16℃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북부 앞바다=남동~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10:50 썰물 < 02:47
여수 밀물 < 06:23 썰물 < 12:43

▲해돋이 06:26 ▲해질 18:50 ▲달돋이 13:43 ▲달질 03:40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9(목)	30(금)	31(토)	4/1(일)	2(월)	3(화)
날씨						
최저/최고	9/19	8/21	11/16	8/18	8/17	4/14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 보냅니다" '북녘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환승식'이 '우리겨레 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와 '광주·전남 농민연대' 공동주관으로 27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열린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한에 보낸 못자리용 비닐은 11t 트럭 4대 분(44t·1억3천천원 상당)이다. /유안=위정기자 jrwi@kwangju.co.kr

교육부 "스승의 날 변경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학년 말인 2월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스승의 날은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되어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사·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또 "스승의 날 변경은 일부 단체나 기관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교직원 관련 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신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스승의 날인 5월15일 교사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전 "스승의 날을 5월15일에서 2월로 옮기고 학교별로 2월 중 하루를 정해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환뉴스

모·교직원 관련 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신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스승의 날인 5월15일 교사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전 "스승의 날을 5월15일에서 2월로 옮기고 학교별로 2월 중 하루를 정해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환뉴스

전남 '온누리안' 자녀 취학 1천명 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 증가 추세 속에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온누리안'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자녀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연령에 달해 입학한 아동은 포항해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온누리안 자녀가 1천95명에 달했다.

등급별로는 초등학생이 997명(남 494명, 여 503명)으로 91.05%를 차지했고, 중학생은 80명(남 31명, 여 49명), 고등학생은 18명(남 8명, 여 10명)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들어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문화가정 자녀 1천95명 중 49명은 아버지 이주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남자는 533명, 여자는 562명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제결혼 이주여성 증가 추세 속에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온누리안'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자녀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연령에 달해 입학한 아동은 포항해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온누리안 자녀가 1천95명에 달했다.

등급별로는 초등학생이 997명(남 494명, 여 503명)으로 91.05%를 차지했고, 중학생은 80명(남 31명, 여 49명), 고등학생은 18명(남 8명, 여 10명)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들어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문화가정 자녀 1천95명 중 49명은 아버지 이주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남자는 533명, 여자는 562명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빗속 포근

낮 최고 14~19도 60%로 예상 강수량은 5mm안팎이 될 전망이다.

약한 황사현상 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8도로 전날보다 낮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더 높아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8일은 전날에 이어 오전 중 약한 황사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 및 농축산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목포 경찰서장 김재병 동광양~순천~인천공항

광주청 경무과장 최종선 금호고속 내달 신규운행

경찰청은 27일 검찰 조사 중 사표를 제출(본보 3월27일자 7면)한 목포경찰서장 후임에 김재병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총경)을 발령했다.

광주경찰청 경무과장에는 최종선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임명됐다.

전(前) 목포경찰서 정인균 서장은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에 대기발령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호고속(대표이사 김성산)은 오는 4월1일부터 동광양~광양~순천~인천공항 노선을 신규 운행한다. 1일 1회 왕복운행하며 동광양발이 오전 7시40분, 인천공항발은 오후 7시20분이다. 소요시간은 6시간15분. 28석 우등버스가 투입되는 이 노선의 각 구간별 요금은 동광양~인천공항 4만500원, 광양~인천공항 3만8천700원이다. 순천~인천공항은 3만6천300원.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CANADA, SOUTHBAY COLLEGE OF TOM

한인대 입학생 모집!

한어교과목은 사제교육을 받아서도 입학 가능하고, 한국인 학생도 입학 가능

고교수업종, 대학생 직장인 입학지원

002-262-8253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a.ca ☎ 0005-310-1513

국제의식산업(주)

맛과 맛을 새롭게...

아이 키움식 가능 (4인제)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코스요리)

062)262-2278